

1995년 『조선영화』 총평



<담가소대장>(리상규 연출, 조선2.8예술영화 촬영소 제작, 1995)의 첫 장면

김일성의 사후 1주년을 맞은 1995년 4월호 속지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함께 찍힌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합성사진인 듯하며 동일한 합성사진이 94년에도 실린 바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함께 한 이러한 사진은 조선영화 8, 9, 10월호로 이어져 총 4회에 걸쳐 게재된 바 있다. 김일성의 뒤를 이은 김정일의 권력 승계 작업은 김일성의 죽음과 김정일의 삶을 동일한 프레임에 놓은 이러한 사진들을 통해서 둘을 구분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김정일이 박수를 치고 있는 단독 미디엄 쇼트는 김정일 생일이 포함되어 있는 2월에 한 번 게재되었으며, 김일성을 꽃과 함께 그린 김일성의 초상화 단독 쇼트는 7월에 한 번 게재되어 있다. 김일성 부자는 사진과 초상화를 오가면서 권력의 등치 가능한 기표로 서로를 교차시키고 있다. 이미지로 도드라져 있는 김정일(의 권력)을 받치고 있는 언어는 수령보다는 당이었으며, 그것도 군인과 군대가 이끄는 당이었다. 특히 1995년은 김일성 사후 1주년보다 조선로동당 창건 50주년으로 당에 의해 규정되면서 권력의 중심을 다시 두텁게 세우려는 지배담론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조선영화』의 표지는 1, 2, 3, 4, 5월 전반기에는 <민족과 운명>이 장식했으며, 6월에는 <담가소대장>의 여주인공이, 7월호에는 <두 병사>가 실려 김일성 사망 직후인 94년 후반기에 이어 군사물주제 영화를 강조하다가, 조국해방 50돐 기념특집 특간호로 발행된 8월호에는 <시인 조기천>의 표지를 실었다. 그러다가 9월호에는 <번개와 우뢰>, 10월호에는 <곡절많은 운명>(제 4부), 11월호에는 <효성>, 12월호에는 <친형제들>을 각각 표지에 실었다. <민족과 운명>은 총 5회, 군사물주제영화는 총 4회에 걸쳐 표지를 장식했다. 이로써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영화들이 90년대를 관통하고 있는 <민족과 운명>시리즈와 새롭게 부각되는 군사물주제영화들이라고 종합해 볼 수 있다(<담가소대장>, <두 병사>, <번개와 우뢰>, <친형제들>). 김일성의 사망 이후 ‘군인’은 김정일의 권력을 가장 전위에서 옹위하고 북

한식 사회주의를 이끄는 주체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선군’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사용되거나 통용되고 있지는 않다. 어찌됐든 표지와 속지 사진을 통해 특정 시대의 특정 영화장르를 당정책에 따라 인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북한의 영화정책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95년 『조선영화』를 장르와 주제별로 살펴보면 우선 장르적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장르를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민족과 운명>시리즈에서 앞선 <허정숙편>이 별다른 주목을 못 받은 채 지나간 뒤 뒤이어 제작된 <귀화일본인여성편>(19~23부)은 <민족과 운명>시리즈에 다시 주목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을 치하하고 있는 기록영화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1994년 12월호에 최초 게재)를 비롯해서 김일성이 해방 이후 처음 교시를 내린 장르가 기록영화 장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록영화의 역사와 작품 소개가 다수의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장르적으로 볼 때 아동영화(만화영화, 지형영화, 과학영화 포함), 청소년영화, 텔레비존영화가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주제별로 볼 때 군사물주제영화와 현실주제 영화가 가장 많이 강조되어 있다. 장르와 주제별 영화들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아동영화문학은 유치원시기와 인민학교시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옳은것과 그른것, 고운것과 미운것, 선한것과 악한것을 기본으로 하여 동화, 우화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림영화, 인형영화, 지형영화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었다.’(동화적 성격창조문제, 11월호) ‘영화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은 현시기 군사현실주제 영화창작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총폭탄의 군인정신을 지닌 90년대 인민군군인들의 사상정신적 풍모를 훌륭히 형상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을 과시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리성호, ‘최고사령관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인민군군인들의 전형적성격형상문제’, 12월호)

95년 『조선영화』는 김일성의 사망 직후인 94년 후반기 『조선영화』의 연속성 속에서 파악해야 하지만, 이전과 다른 몇 가지 특이점이 눈에 띈다.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에게 대를 이어 충성을 맹세하는 영화계 인사들의 수기가 지속적으로 게재되어 있고 김정일의 영화예술분야 주요지도일지가 4월호부터 연재되어, 김정일에게 영화계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해외영화 운동이나 감독을 소개하는 기사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민족과 운명>이 광폭정치를 보여주는 세계적인 걸작이라고 칭송되면서 외부의 내부화를 통해서 민족의 ‘주체화’를 이전과는 다르게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지속적으로 지면을 차지했던 50년에 걸친 북한영화사에 대한 회고는 이러한 ‘외부의 내부화’에 대한 일종의 자격으로서의 역사를 보여준다. 한편 94년 총평에서 언급한 대로 95년에는 ‘주체사실주의’라는 용어가 재등장한다. ‘주체사실주의’는 ‘주체적 문예리론’(한수은, ‘형상의 진실성은 심오한 철학성의 담보, 9월호)과 함께 사상담론으로 언급되어 있어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담론인지 아니면 새 시대를 새로운 용어로 규정하는 또 다른 회절어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듯

하다.

김선아